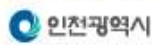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4월 7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 자원재활용팀장 홍 성 이 ☎440-3571 • 담당자 양 수 영 ☎440-357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탈플라스틱 ‘고고챌린지’ 캠페인 동참
-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 약속 -
- 올바른 배출과 수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박남춘 인천시장의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약속하는 탈플라스틱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박 시장은 4월 7일 ‘한번 쓰는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실천하기’ 등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약속하고, 그 내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고고챌린지’는 정부(환경부)에서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생활 속 탈(脫)플라스틱 실천을 약속하고 이어가는 실천 운동으로 1월 4일부터 시작했다.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 운동의 주요 내용은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1가지 행동과 할 수 있는 1가지 행동을 약속하는 ‘고고 릴레이’이다.

인천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공직자들부터 솔선해 참여하는 친환경 자원 순환 청사 운영을 본격화해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시청 1층 커피매장에서는 일회용 커피잔 대신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직원들은 시에서 나눠준 텀블러용 에코백에 휴대한 개인용 텀블러를 통해 커피를 구매하는 한편, 일회용 수저를 대체하기 위해 제공된 개인용 수저보관용기에 개인 수저를 준비해 사용 중이다.

또한 인천시 840여개 공동주택단지에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를 위한 마대를 설치하고 분리배출을 실시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환경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가 선언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른바 ‘쓰레기 독립’의 실현은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품 사용 및 분리배출의 적극적인 동참에서 시작된다.” 며

특히 “올 해부터 투명페트병의 별도 배출이 제도화된 만큼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재활용자원의 올바른 배출과 수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과 장정구 시 환경특별시추진단장의 지명을 받은 박 시장은 ‘고고 챌린지’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진옥동 신한은행장, 어기구 국회의원, 이인숙 인천시 주니어보드의장을 지명했다.

<붙임> 사진자료

탈플라스틱을 위한 **고고챌린지**
박남춘은 계속합니다

